



한국 남성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중년 여성

Foreign Middle-aged Women Providing Sexual Services to Korean Older Men

이 호 선¹⁾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Hosun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Seoul Venture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남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5명에 대한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것이었다. 면담은 연구자가 성매매 거래를 위하여 현장에 나섰던 연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의 분석 결과, 그들은 대부분 우연한 경로나 소개에 의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다수가 성 전파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체류 신분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한 검거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이 심했고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었다. 그들이 성매매를 지속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재정적 곤란 상태 때문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귀향할 수 있으면 곧 그만둘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남성 노인들을 위한 건전한 성문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원 및 성매매 여성의 문제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남성 노인 대상 성매매, 성매매,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female foreigners' decision to trade sex for money in Korea. Five Chinese women who have worked in the sex trade for the Korean older men in Jongro district in Seoul participated in individual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s. Interviewer recruited them through street outreach. The main reason why they chose the sex trade work was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losing their initial jobs in Korea. According to their statements, they suffered from so much personal aggrievement from the older men while they were providing illegal sexual services. They also complained of possible STD symptom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eradicating sex trade as well as setting up a culture of a healthy sexuality for the older men through civic education.

Key Words: foreign prostitute, sex trade, sexual service to older men

1) 교신: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이호선 (wsein@hanmail.net). 본고는 2014년 5월 2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서론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던 1945년부터이지만, 미군의 본격적인 주둔은 한국전쟁이 종식된 후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한국영토 및 그 부근의 주둔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오늘에 이르렀다. 미군의 주둔과 함께 미군부대 주변에는 암묵적으로 공인된 성매매 관련 기지촌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을 비롯하여 의정부, 송탄, 파주, 오산, 하남 등이다(안태윤, 2012).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1961년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듯 했지만, 1963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미군부대 주변 기지촌과 같은 특정 지역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즉 기지촌 지역의 클럽이나 관광호텔들은 ‘특수관광시설업체’로 지정되어 면세주류를 합법적으로 공급받았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관광산업’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이를 장려하는 정책처럼 둔갑하게 되었다(인태정, 2007). 결국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나 외국인이 종사하는 성매매 사업은 미군의 주둔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지촌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신체검사를 거친 후 지역 보건소와 미군 헌병대에 등록하고서 업소로 전속되었는데(이나영, 2007), 1962년도부터 1968년 사이 기지촌 지역의 보건소에 등록된 여성들이 동두천과 의정부에만 거의 10,000여 명에 육박했고 또 등록되지 않은 여성들도 동두천지역에만 10,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조선일보, 1967. 02. 14.). 또 송탄 등지에도 1970년대 후반까지 성매매에 관련된 업무에 연루된 외국인 여성들이 약 2,500명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병력의 감축으로 성매매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주로 미군만을 상대하던 외국인 여성들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

매매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기지촌 클럽업주들의 조직인 ‘한국특수관광협회’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은 본격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것이었다(안태윤, 2012).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예술홍행비자인 E-6비자²⁾로 입국한 후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고용된 자들이었다. 1990년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수를 성별로 보면, 남성들은 감소한 반면에 여성들은 현저하게 늘어났다. 남성은 1990년 2,300명에서 2000년 1,486명, 그리고 2010년에는 1,678명이었지만, 여성은 1990년 1,074명, 2000년 5,578명, 그리고 2010년에는 2,505명이었다. 그 여성들의 대다수는 필리핀, 러시아, 그리고 중국 출신이었는데, 러시아 여성의 경우는 2000년에는 1,465명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입국자가 급감하여 2010년 64명에 불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리핀 여성 입국자의 경우 1990년 60명에서 2010년 2,275명 그리고 중국의 경우 1995년 6명에서 2010년 149명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유입 증가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지만, 외국인 여성들에게 발급된 예술홍행비자(E-6비자)가 성매매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예술홍행비자로 등록된 여성은 2010년 기준 필리핀 여성들이 8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의 42%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었다(법무부, 2014; 여성가족부, 2012).

역시 중국여성과 조선족 여성들도 1990년대 이후 대거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재외동포비자(F-4)나 방문취업비자(C-3)를 받아 각각 5년이나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취업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인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중국인 입국자

2) E-6비자는 E-6-1(예술, 연예), E-6-2(호텔, 유흥), E-6-3(운동)으로 구분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흥행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며, 체류기간은 2년이지만 고용 계약이나 공연 계약 등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600,000여 명 중에서 약 12%인 77,000여 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최근 60세 미만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동포방문비자발급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여성은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의 불법체류도 1990년대 초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했는데, 1993년 29명에서 2010년 1,266명으로 늘어났다. 또 그들은 대부분 필리핀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었다(법무부, 2014).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유입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앞에서 논하고 있는 바처럼 직간접적으로 성매매에 관련된 업소 등에 취업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그 여성들이 받고 있는 피해 등의 인권 문제이다.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관련 업소에 종사하면서 받고 있는 피해는 주로 고용계약의 위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불이행, 업소이동의 강요, 주거 및 일상생활 침해, 기획사의 임금체불, 의료지원 거절 등이다(여성과인권편집팀, 2010; 유영남, 2010). 예를 들면, 경기도 기지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호소한 피해의 사례들은 계약서 서명강요, 계약 이외의 업무 강요, 임금감액이나 체불, 유무일 위반과 같은 고용계약 위반, 성매매 강요, 성폭행 피해, 강제 업소이동, 이동의 자유 박탈, 의무적 성병 검진이나 건강권 침해, 폭언이나 협박과 같은 정신적 학대 등과 같은 유형들이다(안태운, 2012).

남성노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소위 ‘박카스 아줌마’라고 불리는 여성들은 남성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남성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에 따라서 네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호선, 2011). 첫째는 젊은 시절에는 전혀 성매매와 무관한 생활을 하다가 중년기 이후에 생계수단의 일부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유형이다. 둘째부터 넷째까지의 유형은 젊은 시절에 이미 성매매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성매매와 무

관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 둘째는 중년기나 노년기에 다시 생계수단으로서 성매매를 하게 된 유형, 셋째는 성매매를 취미나 유희, 또는 소일거리로 여기면서 중년기나 노년기에 다시 생계와 무관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금전적 소득을 얻는 유형, 그리고 넷째는 중년기나 노년기에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타인의 강요나 권유로 인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있는 유형이다.

근래에 와서 남성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종로부근만 보더라도 200-3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을 정도이다. 역시 최근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성매매 현장에 뛰어들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근래에는 서울의 종로를 중심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 그들의 국적도 다양한 편이다. 그동안 남성 노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거의 대부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조선족 여성이나 중국 여성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연루된 성매매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호선, 2012a, 2012b).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나중에는 남성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일에 종사하게 되었는지를 비롯하여 이러한 일에 종사하면서 겪는 어려움, 이러한 일에 종사한 것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등을 심층면접으로 알아보고서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한국인 남성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41세에서 52세 사이의 외국인 여성 5명이었다. 연구자는 성매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남성노인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타났던 외국인 여성들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면접에 응해줄 것(street outreach)을 부탁했을 때 수락했던 자들이었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던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15명이었으나, 면접내용에 대한 의사소통이 한국어로 가능하면서 면접에 응해 주는 것에 동의한 자들은 모두 7명이었다. 또 그들 중에서 2명은 중도에서 면접참여의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하고의 면접내용을 분석에 이용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 5명의 국적은 모두 중국이었으며, 그들 중에서 3명은 조선족이었다. 연구대상자들과의 심층면접은 2013년 12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개인당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면접을 기본적으로 1회씩 실시한 후 3명은 전화통화에 의한 한 차례의 추가면접 그리고 다른 1명은 다시 만나서 실시하는 추가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 참여에 대한 대가는 대면 면접의 경우에만 1회 40,000원씩을 면접 시작과 함께 지급했으며, 중도에서 면접 철회를 요청한 2인에 대해서도 면접 대가가 지급되었으나 환불 요구는 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후 생활한 기간은 4년에서 9년 사이였으며, 한국에서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는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었다. 또 1회의 성매매 행위로 받은 대가는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였는데, 그 대가는 그들의 연령, 외모가 어느 정도 남성 노인들의 마음에 드는가의 정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다. 그들하고의 면접이 이루어진 장소는 1명만이 커피숍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4명은 다른 사람들의 왕래가 비교적 많지 않은 길 한쪽에 앉아서 이루어졌다. 그들에 대한 다른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소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A	B	C	D	E
연령	41세	48세	52세	46세	51세
국적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	중국	중국
이전 근무처	마사지 업소	식당	식당	공장	식당
가족 관계	1남	답변 거부	1남 1녀	가족 없음	1남
체류 기간	4년	3년	3.5년	6년	9년
체류 상태	불법	합법	합법	불법	불법
성매매 경력	1년	2년	1년	4년	1.5년
성매매 계기	우연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성매매 수입(1회)	3-5만원	1-3만원	2-3만원	1-4만원	답변 거부
귀국 예정 시기	모름	2년 이내	1년 후	모름	미정
질환 의심 증상	가려움	미열	가려움	없음	모름
성행위 보조용품	약, 주사	약	약	약, 주사	진공 흡입관

결과

면접대상자에 대한 접근이나 면접 내용의 분석은 Giorgi(2009)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즉 성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의 본질에 대한 현상을 질문하고서 응답자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귀납법이나 연역법에 의한 유추 해석을 하지 않았다. 면접자들이 진술한 구체적 경험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분되었다. 성매매를 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주제가 “노동현장에서의 인격무시” 및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수단”으로 두 가지이었으며, 현재의 체류 신분이나 하고 있는 일로 인한 “신분상의 불안정” 문제, 현재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 “성매매 행위과정에서의 고통,” 그리고 “향후 계획과 기대” 등이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설명 및 진술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았다.

노동현장에서의 인격무시. 연구대상자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은 주로 마사지업소나 식당, 공장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곳에서의 노동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고 진술했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인격적인 무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라고 꼽았다. 또 마사지업소에서는 본업 이외에도 업주나 손님의 성추행 등이 몹시 힘들었다고 실토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계기로 다니던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 이후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다분히 노력했지만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연루되었다고 진술했다.

“여기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워리워리(강아지)만도 못해! 전에 일하던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 그 개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 개가 깨갱거리면 난리가 나! 우리가 아프면 본척도 안하는 데 개가 아프면 난리가 나! 우린 사람이 아니야!” (대상자 C)

“마사지는 이차가 있는데 다양해요. 나는 나이가 있어도 젊어 보이니까요. 마사지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주인이 썩 밀어요. 안 나가면 나중에 뭘 일 생길지 몰라요. 거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쉬는 게 없고 손님이 원하면 같이 가야 해요!” (대상자 A)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수단. 인격적인 무시 등을 감내하기 힘들어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자신들을 받아주는 곳이나 다른 일감을 구하지 못한 생활이 지속되었다. 결국 무직 상태로 지내다보니 외국인 여성들의 삶은 매우 궁핍하고 고통스러웠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즉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택한 것이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은 나이가 점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만날 사람도 거의 없는 처지에다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누군가로부터 성매매에 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수용할 밖에 없었다. 성매매 행위가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가서 해보자고 제안하면 죄의식이나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나는요, 그만두자마자 먹을 게 없는데, 아는 사람 없어요. 갈 곳 없어요. 굶었어요. 며칠을. 그때 옆집 할아버지가 도와줘서 지금은 이렇게 여기 나와 일도 하니 밥 먹지, 안 그래요?” (대상자 E)

“그게 뭐지? 콩나물, 콩나물! 나는 그것만 한 달 정도 먹었어요. 징그러워. 어찌할 수 없으니 어찌겠소. 뭐든 해야지. 돈이 있어야하니.” (대상자 A)

“가자 하니 가야지 어떻게 해요. 여자 아니요! 돈은 벌어야지, 아무도 안 도와주지, 누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야지, 어찌하겠어요!” (대상자 B)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고. 이게 자신 있는 일은 아니니까 마음이 그렇지요. 돈이 그렇기도 해도 나도 알지!” (대상자 A)

신분상의 불안정. 연구대상자 5명 중에서 3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다른 2명의 비자도 곧 유효기간의 종료일이 다가오는 상태였다. 특히 성매매를 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연구대상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이 심했다. 또 체류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발각·체포될 경우 조사와 더불어 강제출국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정기적인 단속이외에도 부정기적인 단속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경찰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불만 등을 토로했다.

“나는 불법인데, 동포비자도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지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걸리면 아주 끝장이 나요. 그럼 난 어떻게 해?” (대상자 C)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안 걸리게 해야지. 걸리면 바로 체가니까. 지난번 (경찰이) 뗏을 때도 숨었어요. (‘왜’라는 질문에) 왜기는! 나는 불법체류자로 되어있으니까. 쫓겨나니까!” (대상자 E)

“여기는 길 건너보다 단속이 더 많아요. 이쪽에

경찰(서)이 있어 그런가 봐요. 아님 우리가 더 불리하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 같기도 하구요. 벌령 벌령 거려요.” (대상자 B)

성매매 행위과정에서의 고통. 연구대상자들은 성매매 행위를 전후로 고통스러웠고 불편한 경험을 자주 했다고 호소했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남성노인들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었다. 남성노인들과의 거래를 협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작 함께 성행위를 하려고 한방에 들어가 있을 때 남성이 만취상태이거나 냄새가 많이 나거나 매우 불편한 상태일 경우 몸을 섞기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다. 그 중에서도 만취한 상태의 노인들과의 성행위가 가장 힘들었는데, 간혹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노인이 사망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또 남성노인들 중에서 일부는 성매매를 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외국인 여성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성행위를 하고 난 후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그러한 남성들을 대할 때 멸시를 당하는 느낌이나 분노감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역시 남성 노인들의 상당수가 성행위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기부전의 상태라고 했다. 연구대상자들은 그들에게 미리 구입해 준비한 발기부전 치료제나 주사약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서 발기를 시키거나 또는 발기를 유지시킬 때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손이나 입으로만 자극하여 발기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술을 너무 먹고 오면 막 토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주 신경질이 나죠!” (대상자 A)

“저러다 죽으면 어쩌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인이) 가만히 있으면 흔들어보거나 코에다 손을 대 봐요!” (대상자 E)

“노인들이 냄새가 심해. 싫죠. 더러워. 씻지를 않고 냄새가 아주 지독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게 힘들지. 안 왔으면 하지!” (대상자 B)

“노인네들이 후아이단³⁾이지. (‘후아이단요?’라는 면접자의 질문에) 나쁜 놈이지. 내 사정알고는 일 다보고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돈 안 받는다고 그러고 갔어!” (대상자 D)

“노인이니까 일단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약을 줘. (파는 건가요?) 팔지! 아니면 바늘을 줘! (그거?) 응. 그래도 힘들지. 잘 안되니까 콘돔을 못 쓰니까!” (대상자 D)

“참,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많아.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럼 응하시나요?) 돈을 더 받아! 그럼 하지. 그래도 그게 그렇지!” (대상자 B)

향후 계획과 기대. 연구대상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성매매 행위가 불법이고,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므로 이러한 일을 중단하고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는데, 대부분 가족사진을 간직하고 다니면서 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연구대상자 5명 중에서 4명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귀국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곧바로 귀국하려는 것보다도 돈벌이를 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최소 2-3년 정도 더 머무를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이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있던데(식당)가 문을 닫으니까 돈이 없고 좀 더 벌어야 가는데 못가니까 그렇죠!” (대상자 A)

“가고 싶지. 벌써 지났어, 몰라요, 어찌 될라나! 가야지. 나도 가족이 있는데. 언제 가는가? 그건 한 2년이나 있다가 가야하지 않을까요? 계속 송금한다니까! (어떻게요?) 사람 통해서 다 해!” (대상자 E)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이면서) 애가 아들인데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도 손자가 보고 싶어 가야지! (괜찮으실까요?) 애들이 모르니까. 비밀로 해야지. 돈을 벌어야 손자 선물도 사주지!” (대상자 C)

3) 중국어로 “坏蛋”으로 나쁜 놈, 몹쓸 놈의 의미임.

논의

본 연구는 한국에서 남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과 그들의 면접을 통해서 그들의 불법적인 성매매 행태와 실상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파생되는 성매매 문제의 해결 방안의 모색 및 남성 노인들을 위한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에 있었다.

미군이 국내에 주둔한 이래 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대상 성매매를 일종의 ‘관광사업’으로 장려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중적 정책에 의해 성매매 현장에도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으로 업소나 기획사 등에 소속되어 출입국 관리나 보건의료의 지원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남성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처음에 취업을 목적으로 또는 단순 방문 형태로 입국했던 사람들이며, 또 기지촌으로 유입된 여성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다.

후자의 여성들은 대부분, 단순 방문 형태로 입국했을지라도, 고국에서의 가난한 삶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처음 생각한 대로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성매매라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성매매 선택의 결정적인 이유는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과 같은 재정적인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가출 등으로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생계수단으로 선택하는 마지막 방안이 바로 성매매이다. 이와 같은 선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제3자의 권유나 강요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일에 빠져들게 되면, 질병의 감염을 비롯하여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일 등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Tylor & Johnson, 2006).

우리 문화권에서 곧 직면하게 될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취업이나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에서 생계수단으로 남성 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이혼선, 2012b). 연구대상자 C에 의하면, 종로 지역에는 50명 이상의 외국인 여

성들이 자기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상당수가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항상 정신적으로 위기나 위협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보건의료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류상태이거나 단기방문으로 입국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상대하는 자들이 바로 남성 노인들이며, 성매매에 연루된 남녀 모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성 전파성 질환 감염 비율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관리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콘돔사용 등을 비롯한 감염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 2011; 안태윤, 2012; BBC, 2014).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여성과 반수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고하였다(<표 1> 참조). 남성 노인들의 성 전파성 질환 감염이나 확산은 그와 같은 여성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 여성들 그리고 그들과 성적 접촉을 하고 있는 남성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 측면의 조치가 시급하다. 물론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소홀하게 다루지 않아야 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 성매매 관련 활동을 근절시키는 정책 입안이나 실행이 절실한 실정이다. 후자의 예로는 경찰 조직에서 외국인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고 송출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 예술홍행비자(E-6) 발급의 개선, 비자 발급 및 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을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송출업무를 추천하거나 허가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일, 그리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 성매매 알선자인 유흥업소 업주 등의 관리나 처벌을 강화하는 일, 성매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김복준, 2010; 안태윤, 2012).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2011). *65세 이상 노인 성병환자 연평균 12.7% 증가*. (2011. 7. 23. 보도자료)
- 안태윤 (2012).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실태분석* (현안보고서 2012-05). 경기도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복준 (2010).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 과정과 브로커·업주처벌의 현실. *여성과 인권*, 4 (2010년 하반기), 38-48.
- 법무부 (2014. 05. 19). *2013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465-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여성가족부 (2012). *2010 성매매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과 인권 편집팀 (2010).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의 현황과 실태: 부산 초량, 경기 동두천, 군산 아메리카 타운을 중심으로. *여성과 인권*, 4 (2010년 하반기), 11-23.
- 유영님 (2010).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대안. *여성과 인권*, 4 (2010년 하반기), 49-60.
- 이나영 (2007).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 (4), 5-48.
- 이호선 (2011).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피해 여성연구: ‘박카스아줌마’ 실태조사 및 노인상담적 접근. *한국노년학*, 31 (3), 489-503.
- 이호선 (2012).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 연구, ‘박카스아줌마’ 실태조사 II. *한국노년학*, 32 (2), 501-512. (a)
- 이호선 (2012). 박카스아줌마 대상 성구매자 남성 노인의 성구매 동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 (2), 215-239. (b)
- 인태정 (2007). *관광의 사회학: 한국 관광의 형성 과정*. 경기도 파주: 한울아카데미.
- 조선일보 (1967. 02. 14.). *행정협정 후의 미군기지촌, 미병들의 발길 뜰해. 주류 안 팔려 위안부들 큰 타격*.
- BBC (2014). *Crossing continents - South Korea: Sex in the sunset years*. (2014. 04. 24. 방송) [<http://www.bbc.co.uk/programmes/b0418rcc>]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ittsburgh, Philadelphia: Duquesne University Press.
- Tyler, K. A., & Johnson, K. A.(2006). Trading Sex: Voluntary or coerced? The experiences of homeless youth. *Journal of Sex Research*, 43, 208-216.